

Bakelite Korea “분리매각설 부인”

Bakelite AG 전체 매각작업 진행 ... JP모건이 상반기에 실사 마무리

Bakelite Korea가 2004년 2/4분기 매각에 관련된 데이터 수집 작업을 마치고 인수대상 기업 선정에 대한 대체적인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Bakelite는 페놀, 에폭시를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는 기업으로 한국을 비롯한 독일, 미국에 지역본부를 두고 아시아, 유럽, 미국 등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Bakelite AG는 RAG 그룹 내 Rutgers AG 부문의 4개 소그룹 중 한곳으로 Bakelite Korea는 Bakelite AG의 아시아 지역본부의 역할을 해왔다.

Rutgers AG는 Bakelite AG, Isola AG, HT Troplast AG, RUTGER Chemical 4개의 사업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Rutgers Chemical 부문을 제외한 Rutgers AG의 3개 사업부문을 매각하기로 함에 따라 Bakelite Korea 역시 M&A의 대상에 오른 것이다.

그러나 Bakelite Korea를 별도로 분리매각 하는 것이 아닌 Bakelite AG 전체가 매각 대상이기 때문에 공장 이전 및 생산의 변화는 없을 전망이다.

Bakelite Korea 관계자는 “Bakelite 매각은 단순히 소유주가 바뀌는 것일 뿐 에폭시 생산에 변화가 생기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Bakelite Korea는 국내시장 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에서 시장을 확대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범용제품이 아닌 Specialty 제품에 강점을 갖고 있다”며 “매각에 따른 후유증은 없다”고 밝혔다.

현재 Bakelite AG 매각은 JP모건이 실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많은 기업들이 구매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져 6월 전까지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국내기업이 인수에 참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기석 기자>

<Chemical Journal 2004/03/19>